

12월 27일(월) / 시 31-33

- ▶ **내용요약** :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시며 산성 이심을 고백했다.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했다. 32편은 다윗의 참회와 감사가 담겨져 있는 시이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이들이 복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참회와 회복의 경험을 나누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청했다. 33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이다. 시편기자는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도록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시며, 크고 광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이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33편)
“여호와와 ()은 영원히 서고 그의 ()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 ▶ **생각하기** : 32편은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자 찬송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12월 30일(목) / 시 46-48

- ▶ **내용요약** :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47편 또한 고라 자손의 찬송시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큰 왕이심을 고백했다. 그리고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요청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열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48편도 고라 자손의 찬송시이다. 시편기자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 ▶ **질문** : 시편기자는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의 무엇이 되신다고 고백했는가? (47편)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찬송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각 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1월 2일(일) / 시 58-60

- ▶ **내용요약** : 시편 58편은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저주가 담겨져 있는 지혜와 교훈의 시이다. 다윗은 정의를 버린 통치자들과 악인들을 향해 경고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들은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59편은 다윗의 탄식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고 또한 높여주시기를

12월 28일(화) / 시 37-39

- ▶ **내용요약** : 시편 37편은 알파벳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다윗의 지혜시이다.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선을 행하라고 교훈했다. 38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했다. 다윗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멀리했고, 심지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청했다. 39편 또한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 참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 ▶ **질문** : 다윗은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았다고 고백했는가? (37편)
- ▶ **생각하기** :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쳐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듣는다. 그러나 속지 말자. 오히려 더욱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12월 31일(금) / 시 52-54

- ▶ **내용요약** : 시편 52편은 다윗의 교훈시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그들의 인생은 의인의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53편 또한 다윗의 교훈을 담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찾지 못하셨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시온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찬송한다고 고백했다. 54편은 다윗의 탄원시이다. 다윗은 막연함이 아닌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고백했다.
- ▶ **질문** :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가? (53편)
- ▶ **생각하기** : 기도는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성도의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신뢰의 고백이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동시에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시며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했다. 60편 또한 다윗의 교훈과 탄식을 담고 있다. 다윗은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회복을 구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연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

12월 29일(수) / 시 40-41

- ▶ **내용요약** : 시편 40편은 다윗의 감사와 탄원이 담겨진 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을 응징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교훈했다. 한편 시의 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했다. 그는 현재 수많은 재앙과 자신의 죄로 인한 영적 고난에 빠져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41편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이다. 물론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 ▶ **질문** :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가? (40편)
- ▶ **생각하기** :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1월 1일(토) / 시 55-57

- ▶ **내용요약** : 시편 55편에는 다윗의 교훈과 탄식이 담겨져 있는 시이다. 먼저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청하며 자신의 대적에 대해 고백했다. 그러나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이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다. 56편 또한 다윗의 탄식시이다. 역시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서원할 수 있었다. 57편에서도 다윗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대적들의 이와 혀는 창과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57절)
“내 ()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을 깨우리로다”
- ▶ **생각하기** : 다윗의 탄식은 언제나 찬송과 감사로 변화되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한 찬송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자.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59편)
“나는 주의 ()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심이니이다”
- ▶ **생각하기** :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우리의 할 바 지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히 12:6-8을 읽으라)